

## 일탈과 통제: 언어, 명예훼손, 그리고 초서의 『식품조달인의 이야기』

임 현 양

서울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1275년 에드워드 1세에 의해 제정된 명예훼손(*scandalum magnatum*)법은 리처드 2세 재위기간 동안 1379년과 138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다. 거짓된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공표”(publish)함으로써 왕과 국민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나 국가의 지배층에 대한 중상, 비방을 규제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국가의 평안을 도모하고자 했던 이 법은, 재위기간 내내 왕권을 압박하는 귀족세력과 갈등 속에서 1381년 농민혁명을 비롯해 각종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겪어야 했던 리처드 2세에 의해 그 유효성이 재강조 되고 적용 범위 또한 확장된 것이다. 1379년 개정안이 명예훼손법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 “대법관과 왕실회계국장관, 국새상서부서기, 국왕의 집사, 법정의 판사들”(the Chancellor, Treasurer, Clerk of the Privy Seal, Steward of the King’s House, Justices of the one Bench or of the other)등을 포함하도록 했다면, 1389년 개정안은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거짓 소문을 지어낸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한 자 역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Hanrahan 259-61; Green 244). 이렇듯 십년 남짓한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중상(slander)죄에 관한 다른 일반적인 법조문들과 더불어 갖은 비방과 억측, 루머가 난무했던 리처드 2세 치하 영국 사회의 모습을 반증한다. 동시에 이는 민중의 언술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계급간의 불화를 잠재우고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려했던 리처드 2세 정권의 강력한 의지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법 개정이라는 사건이 초서의 『식품조달인의 이야기』(*The Manciple's Tale*)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사실 집필 연도조차 정확하지 않은<sup>1</sup> 이 작품이 1379년이나 1389년의 명예훼손법 개정이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버스(Phoebus)에 의해 그의 아내의 비행을 고자질한 죄로 흰 깃털은 뽑혀 까맣게 변하고 노래와 말을 잃은 채 문 밖에 내쳐지는 까마귀의 우화에서 지배층에 대한 비방 행위를 규제하려는 당대 사회의 움직임은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즉 언어가 지닌 치명적인 위력에 대한 인식과 언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그로인해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제거하려는 지배층의 의지 등이 리처드 2세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초서의 작품에 공히 나타나 있다.

『식품조달인의 이야기』에 대한 비평은 주로 문학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 또는 언어의 오용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Grudin 150; Borch 288). 하워드(Donald Howard)에 따르면 『두 번째 수녀의 이야기』(*The Second Nun's Tale*)를 포함해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의 마지막 세 이야기는 독자로서 하여금 이전에 이루어졌던 초서의 모든 세속적인 관심들과 행위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이야기 게임”(tale-telling game) 자체를 부정하고, “나에게선 우화 같은 것은 들을 수 없을 것이다”(Thou getest fable noon ytoold for me, 「교구사제의 이야기 서시」(*The Parson's Prologue*) 31)<sup>2</sup>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교구 사제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한다(304). 패터슨(Lee Patterson) 역시 식품조달인의 우화는 교구 사제의 이야기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이 작품은 「초

<sup>1</sup> 허시(S. S. Hussey)를 비롯한 몇몇 비평가들은 『식품조달인의 이야기』가 화자인 식품조달인이나 그의 이야기의 서문과의 연계성도 적고, 작가로서 초서의 역량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이 『캔터베리 이야기』 중 거의 마지막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작에 속한다고 주장한다(137). 그러나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초서의 “냉소적인 원숙함”(sardonic maturity; 138)을 보여준다는 콕힐(Neville Coghill)의 의견을 수용하여 초서의 작품 중 상대적으로 후기작이라는데 동의한다.

<sup>2</sup>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든 초서 작품의 인용은 *The Riverside Chaucer*를 따른다. 논문에 인용된 모든 초서 시의 번역은 필자의 것임.

서의 철회」(*Chaucer's Retraction*)와 더불어 시 작업 자체에 대한 작가의 회의, 자기반성의 표현이라고 본다(377). 즉, 식품조달인의 이야기에서 초서는 교구 사제가 부정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우화를 들러줌으로써 “이야기 게임”의 부도덕성과 무위함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캐터굿(V. J. Scattergood)과 프레이든버그(Louise Fradenburg)는 까마귀와 피버스의 관계가 신하와 주군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보고, 이 작품이 자신을 시인이자 왕의 조언자로 상징하고 있는 초서가 주군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충고를 하고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해석한다.<sup>3</sup>

본 논문 역시 『식품조달인의 이야기』를 말 혹은 언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한다. 초서는 이 작품에서 언어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이며, 문명을 가능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언어에 대한 키케로식의 서구 전통적인 태도를 부정한다. 언어에 대한 초서의 회의적인 태도는 『캔터베리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초서의 철회」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자신의 세속적인 행위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은 마치 말이 모든 사악함과 타락의 근원이라는 기독교적 개념을 역설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이야기 게임”을 비롯해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작품을 철회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과연 종교적인 자기 성찰의 산물이기만 한 것인가? 『식품조달인의 이야기』가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당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작가의 통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의 법정 기록이나 역사서는 비방, 중상 등 사회에 유통되는 언어들에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권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와 더불어, 이런 규제 노력에 반하는 민중의 끊임없는 일탈, 위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sup>4</sup> 특히, 런던은 당시 시

<sup>3</sup> 『식품조달인의 이야기』는 2003년 발간된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특집의 주제로, 이 작품에 대해 쓴 6편의 논문은 거의 대부분 언어와 초서의 시학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버치(Marianne Borch)는 『식품조달인의 이야기』에서 수사법이 극단적으로 오용된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초서는 말이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89). 하인즈(John Hines)의 경우는, 『식품조달인의 이야기』가 언어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라는 캐논(Christopher Cannon)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특히 “언어행위”(speech-acts) 이론에 착안해, 초서가 이 작품을 통해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화된 환경이나 문맥을 살펴야 하며, 그 말은 행위로 이어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302).

장이었던 브렘버(Nicholas Brember)와 노스햄튼(John Northampton)을 중심으로 한 상인자본(merchant capitalists)과 소규모 길드(smallcrafts guilds) 간의 알력에서부터 1381년 농민 혁명과 위클리프 종교 운동, 리처드 2세와 의회간의 갈등, 그리고 1399년 페위와 헨리 4세의 즉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적 변혁을 겪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세인트폴 성당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내붙는 대자보(broadsides)와 온갖 루머로 조용할 날이 없는, 그야말로 소란스러운 도시였다(Hanrahan 261; Justice 13-66; Strohm, *England's Empty Throne* 19-25). 비단 『식품조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캔터베리이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말과 언어에 대한 초서의 우려는 이런 사회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화자인 식품조달인이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상대적으로 민감했을 법학원("a temple," 『총서시』(*The General Prologue*) 567)에 소속되어 있는 하급서기("minor officer"; Wallace 247)였고, 이 법학원이 런던에 소재한 기관이었다는 사실은 초서가 이 작품을 통해 화자에게는 매우 익숙했을 당시 런던의 모습을 조망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식품조달인의 이야기』가 14세기 말 영국의 사회적 현상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언술 행위를 통제했으며, 과연 언어를 통제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피버스의 집"(Phoebus' house)이라는 공간을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주거의 장소이자 통제와 억압의 장소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피버스의 집"은 언어가 지닌 유동성의 상징으로 그리고 런던이라는 공간의 상징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sup>4</sup> 14세기 말 증상 비방 죄에 관한 처벌 기록은 *Memorials of London and London Life*를 참조할 것. 리처드 2세의 페위와 관련해 당대의 사료를 발췌해 놓은 기븐 윌슨(Chris Given-Wilson)의 저서 역시 1387년에서 1399년 경 런던과 영국 각지에서 떠돌던 루머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루머와 루머를 이용한 각종 증상과 비방이 당시 정적을 공격하거나,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일종의 언어적 오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방과 같은 사회적 행위는 리처드 2세 당시 영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대변하고 있다.

## II. 『식품조달인의 이야기』

『식품조달인의 이야기』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오비드의 『변신』(*Metamorphoses*) 2권에 나오는 피버스의 궁전은 금과 아이보리로 장식되고, 높이 솟은 기둥들이 늘어서 있으며, 문은 마치 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올림포스 신들의 행위를 묘사한 온갖 기묘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는 웅장하기 그지없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코로니스(Coronis)는 태양신인 피버스의 정부로 그의 아이를 잉태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피버스가 이 아래 지상에 거주할 때”(Whan Phebus dwelled heere in this erthe adoun; 1)라는 말로 시작하는 초서의 이야기에 오면 그 공간적 배경은 천상의 궁전이 아니라 “집”이라고 불리는 지상의 지극히 가정적이고 소박한 공간으로 바뀌고, 피버스는 뛰어난 기사(bachelor; 107)이자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둔 질투 많은 남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아내”(wyf; 139)로 소개될 뿐이다. 화자는 피버스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고 서술하지만, 그의 행동은 아내의 의도로 남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피버스의 이기심의 소산이며(“For hym were looth byjaped for to be”; 145), 그의 아내란 사실상 집이라는 공간에 갇힌 새장의 새에 불과하다. 거주의 공간으로서 집은 흔히 적대적인 외부의 힘으로부터 그 거주자를 보호하는 장소로 제시되곤 한다. 예를 들어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집이란 원초적인 충족성과 아늑함의 상징으로 인류에게 안정성(stability)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주장한다(17). 그러나 사적인 공간으로서 집의 상징성에 대한 바슐라르의 주장은 중세 문학에 나타나는 집이라는 공간, 특히 권력의 중심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했던 귀족들의 거주 공간에 적용했을 때는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마치 소박한 사적 공간인 듯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조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피버스의 집 역시, 그와 그의 아내에게 충족과 아늑함을 주기보다는 아내의 성적 일탈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옥과 같다. 공간이 가지는 성격은 유동적이어서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공간을 쓰고자 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거소하는 자가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시장이라는 소비와 교환, 생산이 이루어지는 속된 공간도 성직자가 그곳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려 한다면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피버스의 집도 그의 의지에 따라 거주 공간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피버스는 자신의 남성다운 자질과 행동(“governance”; 158)을 보면 그 누구도 그에게서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행동”(governance)이라는 말에 내포된 이중적인 의미에서 암시되듯이 그의 자신감은 어쩌면 남성다운 행동이 아니라 아내를 철저히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초서는 피버스의 아내를 소개하는 문장을 교묘하게 그의 애완용 까마귀를 소개하는 문장과 병치시킴으로써 그 둘의 처지가 유사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 피버스의 집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새장에서 기르며  
마치 어처에게 말을 가르치듯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  
자, 피버스의 집에는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그녀를 더 사랑해서,  
그녀를 만족시키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밤낮으로 부지런히 노력했지요.  
단,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질투가 많아 그녀를 늘 감시했습니다.

Now hadde this Phebus in his hous a crowe  
Which in a cage he fostred many a day,  
And taughte it speken, as men teche a jay.

.....  
Now hadde this Phebus in his hous a wyf.  
Which that he lovede moore than his lyf,  
And nyght and day dide evere his diligence  
Hir for to plesse and doon hire reverence  
Save oonly, if the sothe that I shal sayn,  
Jalous he was, and wolde have kept hire fayn. (130-44)

피버스의 까마귀와 아내를 9행의 간격을 두고 “crowe”와 “wyf”라는 마지막 단어만 바꾼 채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여 소개함으로써 초서는 새장에 갇힌 새란 바

로 아내이며 그들의 처지가 유사함을 암시한다. 오비드의 『변신』에서 피버스에게 코로나스의 간통을 고자질하는 것은 사실 까마귀(“crow”)가 아니라 갈가마귀(“raven”)이다. 초서가 『변신』의 갈가마귀(“raven”)를 까마귀로 바꾼 것, 그리고 원전에서 피버스의 아내의 이름이 코로나스, 즉 까마귀라는 사실은 피버스의 이름 없는 아내와 까마귀의 유사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아내를 집이라는 공간에 가두고 그녀의 성적 욕망을 통제하려 한 것처럼, 피버스는 까마귀 역시 새장이라는 공간에 가두어 그를 규제하고자 한다. 오비드의 작품의 갈가마귀와는 달리 초서의 까마귀가 피버스가 기르는 새이며, 그에게서 음악과 말하는 법을 배우며, 새장 안에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에서 간혀있는 새는 피버스의 까마귀가 유일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즉, 피버스의 새장은 이 작품에서 그의 집과 더불어 통제와 구속의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피버스가 그의 아내의 성적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그가 지배하는 공간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려 했다면, 까마귀에 대한 그의 통제는 주로 언어를 통해 행해진다. 시와 음악,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는 신답게 피버스는 어치(“jay”; 132)에게 말을 가르치듯 까마귀에게 말을 가르쳐, 어떤 사람의 말도 흉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이팅게일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로 훈련시킨다. 노랫소리로 돌을 움직여 테베(Thebe) 돌레에 담을 쌓고 나라를 건설한 앰피온(Amphion)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115-18) 피버스의 노래란 언어가 지닌 위력의 상징이며 문명의 상징이기도 하다.<sup>5</sup> 까마귀에게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에게 이성을 부여함으로써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음악과 이성을 관장하는 신의 거주 공간답게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이 공간은 하지만 아내의 성적인 일탈행위와 그것을 고자질하는 까마귀의 목소리에 의해 깨어진다. 식품조달인은 동물의 비유를 들어 인간의 성적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자연이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심어놓은 어떤 것을 억제할 수는 없다”(ther may no man embrace / As to destreyne a thyng which that nature / Hath naturelly set in a creature; 160-62)고 주장한다.

<sup>5</sup> 이 작품이 쓰였던 시기와 관련하여 앰피온의 비유가 특별히 흥미를 끄는데, 배론(Caroline M. Barron)에 따르면 1379년 런던 시민이 부담해야 했던 부역중 하나가 5주마다 하루씩 돌아가며 런던의 담을 보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243). 노랫소리를 들려주면 저절로 돌이 움직여 담이 쌓아지는 앰피온의 신화는 부역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금빛 새장에 최상의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정성껏 키운다 해도 잡힌 새는 어둡고 추운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벌레를 먹고 살더라도 새장을 벗어나고자 한다. 고양이 역시 우유와 연한 고기에 길들여졌다 할지라도 쥐를 보는 순간 모든 산해진미를 버리고 그 쥐를 잡아먹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욕망은 본능이라 어떤 통제와 감시에도 제어될 수 없으며, 아내의 일탈행위를 통제하고자하는 피버스의 노력은 헛될 뿐이다. 말하고자하는 충동 역시 인간의 본능이라 결코 통제되거나 훈련될 수 없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문학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에 대한 통제가 많은 경우 그들의 성적 욕망에 대한 통제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피버스의 아내의 성적 일탈행위와 까마귀의 언어적 일탈행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버스 아내의 비행을 목격한 까마귀는 피버스가 외출에서 돌아오자마자 “커코우, 커코우, 커코우”(Cokkow, Cokkow, Cokkow; 243)라고 소리치고, 처음 들어보는 불협화음에 피버스는 당황한다. “뻐꾸기”(cuckoo)라는 의미이자 “오쟁이 진 남편”(cuckold)을 의미하는 까마귀의 노래는 언어를 통해 동물의 본능을 통제하고 이성을 부여하고자한 피버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까마귀에게 언어를 가르침으로써 피버스는 새가 오직 자신이 하는 말만을 따라하거나(“countrefete”; 134) 아름다운 노래로 자신을 “기쁘게 해 주기를” 원했다(Ne were thow wont so myrily to syng / That to myn herte it was a rejoyssynge / To heere thy voys? 245-7). 그러나 새가 마치 주인인 피버스를 비웃듯 그의 온갖 감시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보잘 것 없는 사내”(oon of litel reputacioun; 253)를 끌어들이어 어떻게 그를 배신했는지를 말할 때, 피버스는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까마귀에게서도 배신당한 것이다.

그 배신에 대한 대가로 아내는 피버스의 화살에 맞아 죽고, 까마귀는 “반역자”(traitour; 271)라는 낙인이 찍힌 채 깃털을 뽑히고 말하고 노래하는 능력을 잃는다. 중세 말기 영국에서의 진단 유포 행위(bill-casting)와 정치적 담론 문제를 연구하면서 스케이스(Wendy Scase)가 지적하고 있듯이, “반역자”라는 단어는 “유동하는 기호”(floating signifier; 235)로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나 대상은 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국왕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었다. 이 점은 초서의 까마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까마귀를 단죄하는 피버스의 대사는 까마귀의 언술행위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버스 아내의 비행을 고자질하는 까마귀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평가들의 해석 역시 다양하다. 하워드 이후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식품조달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까마귀를 문제 많은 잡담가로 보는 반면, 피어설(Derek Pearsall)의 경우는 원전에 묘사된 말 많은 갈가마귀와는 다소 다른 초서의 까마귀에서 정직하고 충실한 신하의 모습을 발견한다(239). 은연중에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까마귀의 이야기를 정직하고 충실한 신하의 조언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초서의 작품에서 까마귀는 피어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자신이 목격한 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And told hym ofte he saugh it with his yen”; 261) 그의 진실은 무참하게 부정된다.<sup>6</sup> 피버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줄 희생양으로 까마귀를 지목하고 그에게 “전갈의 혀를 가진 반역자. 네가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Traitor,” quod he, “with tonge of scorioun, / Thou hast me broght to my confusioun”; 271-72)고 비난한다. “확실한 증거와 대담한 말투”(By sadde tokenes and by wordes bolde; 258)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아내의 비행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버스는 증거 없이 까마귀의 말을 믿었던 자신의 성급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까마귀의 이야기는 거짓이며 그로 인해 그의 아내가 죽었다고 질책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폭풍이 다가올 때마다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백조와 같이 아름답던 그의 하얀 깃털은 모조리 뽑히고 말까지 빼앗긴 채 까마귀는 문밖으로 내쫓기는 반면, 피버스의 부정한 아내는 아무 죄 없이 희생된 정숙하고 진실한 여인으로 포장되는 것이다.

까마귀에 대해 “전갈의 혀를 가진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네가 나를 파멸로

<sup>6</sup> 그러딘(Michaela Paasche Grudin)은 『식품조달인의 이야기 서문』에서 요리사를 비방하는 식품조달인과 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까마귀를 비교하면서, 식품조달인이나 까마귀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식품조달인이 요리사에 대한 자신의 비난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려 타협하는 반면, 까마귀는 진실을 말하며 그로인해 고통 받는다고 주장한다(154-55). 그러나 식품조달인이나 까마귀의 말 둘 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주관적 견해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까마귀의 경우 마치 그간의 통제에 반발해 주인을 약 올리듯 “피버스, 당신의 모든 가치와, 그 지극한 아름다움과 고귀한 성품, 당신의 모든 노래와 시, 그리고 온갖 감시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보잘 것 없는 남자에게 속고 있습니다(“Phebus,” quod he, “for al thy worthynesse, / For al thy beautee and thy gentillesse, / For al thy song and al thy mynstralcy, / For al thy waityng, blered in thyn ye / With oon of litel reputacioun”; 249-53)라고 말함으로써 피버스의 분노를 자아내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끌었다”는 표현을 쓴다던지, 혹은 그의 “거짓말“(thy false tale; 293)에 대한 대가로 “그와 그의 자손들은 영원히 검은색을 띠게 될 것이며, 결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Thou and thyn ofspryng evere shul be blake, / Ne nevere sweete noyse shul ye make; 299-300)라는 피버스의 저주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집에서 일어난 사소한 가정비극은 14세기말 영국의 역사서나 문서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용어로 전달되고 있다. 초서는 비방과 중상 등 당대 사회의 혼란스러운 언술행위와 그것이 야기했던 정치적 과장을 피버스의 집이라는 작은 거주 공간을 통해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피버스의 집에서 당대 사회의 모습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스트롬이 지적하고 있듯이 중세 사회에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남편이나 한 교구의 수장으로서의 사제, 혹은 길드의 우두머리인 동업조합장(guildmaster) 등은 종종 비유적으로 왕을 상징하며 그들이 지배하는 공간은 국가의 대응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Strohm, *Hochon's Arrow* 125).

런던을 하나의 거주 공간에 비유하고 그 공간을 침입하여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사악한 혀”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초서만이 아니다. 1393년에 나온 『콘코르디아: 리처드 2세와 런던 시민의 화해』(*Concordia: facta inter regem Ricardum II et civitatem Londonie*)라는 리처드 메이드스톤(Richard Maidstone)의 시를 보면 리처드 2세와 런던 시민은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런던은 신방(bridal chamber)에 비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월의 스무 한 번째 새벽이 세상을 밝혔을 때  
런던이여, 즐거운 소문이 그대의 경계 안에 퍼졌으니,  
마침내 그대, 악의적인 비방이 그대를 기만하고 앗아간  
그대의 배우자이자 주군인 왕을 다시 맞게 되리라.  
양심을 품은 한 무리가 왕을 부추겨 진노케 하여  
신랑은 신방을 버리고 떠나갔었노라.

.....  
비방의 신랄한 혀도 배우자로서 신방에 다가가고자하는  
왕의 열망을 막지 못했으니,  
한 때 그대의 모든 특권을 철회했으나,  
이제는 돌아와 기꺼이 그를 더 증대시키고자 하노라.<sup>7</sup>

Mensis ut Augusti ter septima fulsit in orbem  
 Lux, tibi, Londonie, rumor amenus adest;  
 Namque tuum regem, sponsum dominumque tuumque,  
 Quem tibi sustulerat Perfida Lingua, capis.  
 Invidiosa cohors regem tibi vertit in iram.  
 Desereret thalamum sponsus ut ipse suum;  
 . . . . .  
 Non poterat mordax detractans lingua tenere  
 Quin cuperet thalamum sponsus adire suum.  
 Qui libertates solitas tibi dempserat omnes  
 Nunc redit, et plures reddere promptus eas. (15-20, 41-44)

이 시가 쓰였던 당시 런던은 시의 특권을 폐지하고 시장과 시 참사회원(aldermen), 주장관(sheriff) 등을 체포했던 리처드 2세와 심각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 시가 나오기 직전인 1392년 8월 21일, 리처드 2세는 화려한 행렬을 동반하고 런던 시가를 행진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런던 시민과의 화해를 도모했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는데, 메이드스톤의 시는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런던의 시민을 왕의 신부로 설정하고, 그간 왕이 신부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절실했으나 “거짓된 혀”(Perfida Lingua; 18)의 방해로 신방에 들지 못 했다는 말로 런던과 리처드 2세와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이젠 신랄한 비방도 더 이상 둘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고, 왕은 신부와 화해하고자 신방을 향해 오고 있으니 신부는 단장을 하고 그를 맞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식품조달인의 이야기』에서 피버스가 까마귀의 진실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드스톤의 시 역시 언어의 유희성을 이용해 그때까지 런던에 떠돌던 왕에 대한 소문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거짓”(Perfida; 18)이라고 일축함으로써 런던 사회에 유통되던 정치적 담론을 규제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를 드러낸다.

14세기 말 런던과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쓰인 문서들과 문학작품을 분석하면서 스트롬(Strohm, *Hochon's Arrow* 5)이 강조한 것처럼 거짓도 진실보다 더

<sup>7</sup> 『콘코르디아』의 번역은 “신방”을 의미하는 “thalamum”을 제외하고는 리그(A. G. Riggs)의 영어 번역을 참고한 필자의 번역임. “thalamus/thalamum”은 “신방”(bridal chamber)이라는 의미와 “침대”(marriage bed)라는 의미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또 위조된 문서나 사료가 더 설득력 있게 진실을 날조할 수 있다면, 식품조달인은 진실도 권력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위협해 질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한 예로, 알렉산더에게 전해진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식품조달인은 왕권을 찬탈한 자와 일반 도둑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많은 수의 군사와 막강한 힘을 지닌 독재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를 일삼아도, 그가 지닌 힘 때문에 “수장”(capitayn; 230)이라고 불리는 반면, 범법자는 그 독재자만큼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으로 비난받는다. 또한 그는 부정을 범한 여인들의 경우, 똑같은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신분이 높을 경우는 “귀부인”(lady; 218)이라고 불리지만 가난한 여인의 경우엔 “정부”(“his wenche or his lemman”; 220)로 불린다고 주장한다. 즉 언어가 전달하는 의미는 유동적이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가진 힘에 따라 의미가 변하고 하나의 진술의 진실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유동성은 리처드 2세 시대 명예훼손죄에 대한 재판 기록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사실 비방(slander)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행위에 대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일수도 있지만, 잘못된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진술의 진실 여부는 종종 권력의 힘에 의해 쉽게 부정되거나 왜곡됨을 보게 된다. 특히 14세기 영국의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법을 보면 중상 비방 죄로 고소된 피고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이 진실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했는데, 그 진술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주장하기는 쉬운 반면 진실임을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법은 주로 비방의 대상이었던 지배층에게 유리하도록 제정된 것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준다. 한 예로 1377년 런던을 소란스럽게 했던 랭캐스터공 존 고운트(John of Gaunt, the Duke of Lancaster)에 대한 비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379년 리처드 2세의 명예훼손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했던 이 사건은 당시 언어로 인해 런던에 감돌던 긴장과 불안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리처드 2세의 숙부로 당시 10세가 갓 넘어 등극한 어린 왕의 후견인이자 초서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고운트는 그가 왕위를 노리고 있으며, 존 위클리프(John Wyclif)에게 동조하고, 런던 고유의 자치권을 박탈하려한다는 등 갖가지 루머로 하원과 시민 전체의 미움을 사 비방의 대상이 되곤 했다. 1377년 고운트가 런던의 시장을 폐하고 시를 왕의 손에 넘기고

자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폭도들이 고온트의 런던 관저인 사보이(the Savoy)를 공격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세인트폴 성당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문에 붙은 대자보 중 하나는 그가 플랑드르 도살업자의 사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온트는 두 교회의 주교들에게 그런 “악의적인 시구와 투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자”(qui per tales rhythomos sive schedulas malitiose laeserant famam ejus)를 모두 찾아내 과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Hanrahan 261). 고온트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1378년 고온트에 대해 불경한 말을 퍼뜨렸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된 크넵트(Thomas Knapet)이라는 교회 사제의 경우 그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그 진실은 고온트가 가진 권력의 힘 앞에서 무력했을 뿐이다.

고온트의 경우 중상과 비방이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불만을 표시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이자 배출구였다면, 리처드 2세와 상소귀족(Lord Appellants)간의 대립에서는 중상, 비방이라는 언술행위가 지배층 간의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온트와 마찬가지로 로버트 드 비어(Robert de Vere)와 브렘버를 비롯한 리처드 2세의 충신들 역시 익명의 대자보를 통해 끊임없이 비판되어 왔다. 결국 1387년 리처드는 왕과 왕비, 그리고 그의 고문들과 충신(“ony lordes that haue bien duellyng with the kyng bi-for this time, or of hem that duellen aboute his persone nowe, or shul duelle”)에 대한 비방을 금하는 칙령을 반포함으로써 자신의 충신을 제거하려는 상소귀족들의 공격을 막고자 했다. 그리고 런던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하여 평민들에게 왕에 대한 충성서약을 요구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리처드 2세와 그의 왕비인 앤(Anne of Bohemia)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며, 누구든 왕과 왕비를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체포될 것임을 주시시켰다(Hanrahan 267). 그러나 1388년 상소귀족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충성서약은 무효화되는 동시에 상소귀족들에 대한 중상 비방은 금지된다. 그리고 1387년 내려진 왕과 그의 충신에 대한 비판을 금하는 칙령은 오히려 상소귀족들에 의해 브렘버를 대역죄로 처단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된다. 이처럼 당대의 정치적 격변은 명예훼손의 정의와 적용도 권력의 이동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옳고 그름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380년대 당시 런던 시장이었던 노스햄튼과 브렘버간의 갈등에서도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며, 비방이라는 정치적 무기가 실은 양날의 칼임을 깨닫게 한다. 브렘버에 앞서 런던 시장으로 재직했던 노스햄튼은 주요 식품 공급원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브렘버와 마찰하게 된다. 상인들의 거래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노스햄튼은 적을 통제하고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죄를 선택했다. 한 예로 존 필리올(John Filiol)이라는 어상(fishmonger)에 대해 그는 필리올이 “노스햄튼이 부당하게 어상들로부터 생계를 빼앗았다”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시장에 대해 무례한 언사를 사용했다는 죄목을 씌워 구금한다(Woods 86; Hanrahan 262). 노스햄튼의 이런 행동이 상업 자본가들의 주장이자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브렘버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노스햄튼 역시 그 이후 1383년 브렘버에게 런던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 같은 운명을 걸게 된다. 이때 노스햄튼의 개인 비서였던 우스크(Thomas Usk)가 보여주는 행동은 진실이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개인 비서로 노스햄튼의 행동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우스크는 노스햄튼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해 그가 시장 재직 시 브렘버에 대해 저지른 행위들을 낱낱이 밝힌다. 우스크의 증언을 모두 부정하면서 노스햄튼은 그가 거짓으로 자신을 비방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권력은 리처드 2세의 충신이었던 브렘버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노스햄튼은 처벌을 받게 된다(Hanrahan 262-63). 이후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했던 우스크는 자신은 진실만을 말했을 뿐이며 어떤 악의도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14세기 말 영국의 상황에서 그가 주장하는 언어의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결국 노스햄튼을 배반하고 브렘버와 결탁했던 우스크는 1388년 무자비한 의회(Merciless Parliament)에서 상소귀족들에 의해 브렘버와 더불어 대역죄로 처형된다.

이처럼 피버스가 지배하는 공간이나 리처드 2세 치하의 런던 모두, “거짓과 진실이 섞여있어”(of fals and soth compounded, 『명예의 전당』(*The House of Fame*) 1029) 구분되지 않고, 검은색은 흰색이 되고 흰색은 검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런던이라는 사회의 대응물로서 “피버스의 집”이라는 공간이 권력이 행사되고 그곳에 속해있는 자에 대한 육체적, 언어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그 통제에 반해 끊임없는 일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하다. 이런 일탈 행위는 그것이 본능의 표현이든 아니면 규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든 간에, 그

공간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하는 지배층에 강력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의 힘에 의해 다시 통제될 수밖에 없다. 특히 14세기 말 런던에서 언어적 일탈행위는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리처드 2세 정권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민들 사이에 유통되던 지배층에 대한 비방이 모두 거짓이며 사회적 불화를 조장하는 “사악한 혀”의 간계라고 일축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자 한다. 이처럼 언어의 진실이 권력에 의해 쉽게 부정되거나 왜곡되었던 사회에서 진실은 결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식품조달인은 까마귀와 피버스의 우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로 식품조달인은 자신의 어머니의 말을 빌려 침묵하라고 말한다. 그의 어머니는 사악한 혀(“a wikked tonge”; 320)는 악마보다도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 파멸에 이르는 반면 말을 신중히 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잃지 않고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인간의 가장 큰 덕은 말을 억제하고 입을 단속하는 것이고, 일단 내뱉은 말은 아무리 후회해도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사람은 약점을 잡혀 그의 노예가 된다고 충고한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도록 혀 주위에 이빨과 입술로 담을 쌓아 두셨다고 말하면서 까마귀의 우화를 잘 기억하고 어떤 소문이 진짜든 가짜든 그것을 처음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친다(318-62). 여기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담”(walled; 323)의 이미지는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언급된 앰피온이 쌓은 담이나 피버스의 집, 그리고 새장과 연결되면서 이 공간들이 지닌 통제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어쩌면 어머니의 이 교훈은 까마귀에게 언어를 가르침으로써 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려는 피버스의 의도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충동도 성적 욕구만큼 제어되지 않는 본능이며,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일탈만 부추긴다. 식품조달인 어머니가 경고하고 있듯이 까마귀의 통제되지 않는 혀는 결국 피버스가 통치하고자 하는 공간의 파멸을 초래한다. 화를 제어할 수 없었던 피버스는 아내를 화살을 쏘아 죽인 후 자신의 행위를 곧 후회하며, 이성과 조화의 상징인 하프와 류트 등을 부러뜨리고, “네 이성과 분별력을 어디로 간 것이냐”(Where was thy wit and thy discreion? 282)며 자문한다. 이렇듯 무질서와 혼란만 남은 피버스의 공간에서 “사악한 혀”(Perfida Lingua)에 의해 반목하

고 있다는 메이드스톤의 런던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 III. 「식품조달인의 이야기 서문」

까마귀와 피버스의 이야기가 당시 런던에 대한 우화적 표현이라면 우리는 식품조달인의 서문에서 비방이 난무한 런던 사회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그의 서문에서 식품조달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요리사(Cook)에게 악의에 찬 욕설을 퍼붓는다. 『캔터베리 이야기』의 대부분의 서문에서 순례객간의 언쟁이나 대화가 작품내의, 혹은 당대 사회 내에서의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식품조달인의 이야기 서문」도 요리사와 식품조달인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과연 왜 초서는 이 시점에서 하필 식품조달인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술 취한 요리사를 비난하고자 했을까? 작품 자체는 두 사람의 반목을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당대 현실 속에서 초서가 보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해, 요리사가 식품조달인과 같은 런던 출신("a cook of Londoun"; 『총서시』 11)이며 염색공과 직조공 등 동업조합원들과 동행(『총서시』 379)이라는 사실, 그리고 요리사의 미완성인 이야기가 식료품상인 조합("a crafte of vitellers"; 2)에 속한 난봉꾼 도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은 이 두 인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헨러한(Hanrahan)의 주장대로 1380년대 런던이 상인자본가를 이끄는 브렘버와 소규모 길드를 대표하는 노스햄튼 두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둘로 나뉘져 있었다면(262), 어쩌면 법학원의 물품 조달을 담당했던 식품조달인은 식품 유통업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던 브렘버와, 그리고 동업조합에 속해있는 요리사는 소규모 길드를 지지했던 노스햄튼과 심정적으로 가까울 수 있었을 것이며, 이 두 인물의 반목은 그런 런던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식품조달인은 요리사를 “냄새나는 돼지”(stynkyng swyn; 40), 술 취한 “원숭이”(ape; 44) 등의 말로 비난하면서 그의 지독한 입 냄새가 모든 순례 객을 오염시키는 것 같다고 말한다(40-44). 40행에 걸쳐 말을 신중히 하고 상대방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교훈을 늘어놓으면서도 식품조달인은 자신이 배



운 그 교훈을 이행하지 않는다. 어쩌면 의미 없이 교훈을 나열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리사의 얼굴색은 창백하고, 눈은 초점을 잃어 희미하며, 입에서는 쇠내가 진동한다는 말은 전혀 거짓이 아니고, 식품조달인은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 할뿐이지만 진실이 언제나 옳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술에 취한데다 화가 난 요리사는 이성을 잃고 말문이 막힌 채 말에서 떨어지고, 다른 순례객들은 “술에 취해 무거운 그의 송장 같은 몸”(his hevvy dronken cors; 67)을 다시 말 위에 올려놓느라 애를 먹는다.

식품조달인의 악의에 찬 비난이 순례객간의 작은 분란을 조장했다면, 그의 말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리사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여관 주인의 경고뿐이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요리사를 보며 여관 주인은 식품조달인에게 결코 깨끗할 리가 없는 그의 식품 거래 장부를 문제 삼아 요리사가 양값을 할 수도 있음을 주지시킨다(“he speke wole of smale thynges, / As for to pynchen at thy rekenynges, / That were nat honest, if it cam to preef”; 73-75). 그제야 식품조달인은 자신의 말이 단지 “농담”(bourde 81)에 지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요리사에게 대신 술을 줌으로써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 여관 주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순례 객들 간의 “악의와 불화를 조화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For that wol turne rancour and disese / T'acord and love; Prologue 97-98) 유일한 방법은 말이 아닌 술, 즉 술에 취해 언어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언어의 상실”(lakke of speche; 48) 상태뿐이다. 그리고 이 점은 두 과로 나뉘어져 비방과 중상으로 혼란스러웠던, 요리사와 식품조달인으로 대표되는 14세기 런던 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 IV. 맺는 말

『켄터베리이야기』의 『충서시』에서부터 화자 초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는 경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자신이 듣고 본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 한다고 주장한다. 말과 언어는 초기 시에서부터 『켄터베리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초서의 끊임 없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공작부인의 서』(The Book of the Duchess)의 경우 검은 기사(the Black Knight)와 화자의 대화가 작품의 중심 행위로 아내를 잃은 검은

기사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새들의 의회』(*The Parliament of Fowls*) 역시 성 앨런타인 축제에 짝을 고르기 위해 모인 새들의 토론이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한편 『명예의 전당』의 경우 초서는 황금독수리와 화자인 제프리의 대화를 통해 루머의 속성에 대해 논하는데 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온갖 정치적, 사회적 뉴스거리(tidings)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디덜러스의 집”(The House of Daedalus)은 마치 런던 사회를 상징하는 것 같은 곳으로, 이 공간에 대한 묘사는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담론, 혹은 언술 행위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 단순한 관심 이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초기 시들조차 이미 언어의 파괴력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시들에서 언어의 힘에 대한 시인의 긍정적인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리처드 2세 치하 런던에서의 경험은 초서에게 많은 경우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가르쳐주었다. 말은 끊임없이 오해를 낳고 불화와 적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시인 자신도 피버스에 의해 깃털이 뽑히고 내쳐진 까마귀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다. 「초서의 철회」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말을 “농담”으로 돌려버리는 식품조달인의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다. 시인은 자신에게 더 나은 능력이 주어졌다면 더 좋은 글을 썼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조금이라도 독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And if ther be any thyng that displese hem, I preye hem also that they arrette it to the defaute of myn unkonnyng and nat to my wyl, that wolde ful fayn have seyde better if I hadde had konnyng). 초서의 이런 진술을 단순히 작품을 끝맺는 일종의 시적 관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시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자신이 쓴 거의 모든 세속적인 작품을 철회하는 초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초기 시와는 달리 언어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그의 깊은 우려를 발견하게 된다. 즉, 『식품조달인의 이야기』에 이어 「초서의 철회」에서 시인은 다시 한 번 14세기 런던에서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어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으며, 말이 인간의 뜻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식품조달인의 이야기, 명예훼손, 비방, 공간, 언어, 일탈, 통제

## 인용문헌

- Bachelard, Gaston. *The Poetics of Space*. Trans. Maria Jolas. Boston: Beacon, 1994.
- Barron, Caroline M. *London in the Later Middle Ages: Government and People 1200-1500*. Oxford: Oxford UP, 2004.
- Bird, Ruth. *The Turbulent London of Richard II*. London: Longmans, 1949.
- Børch, Marianne. "Chaucer's Poetics and *The Manciple's Tale*."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25 (2003): 287-97.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et al. 3rd ed. Boston: Houghton, 1987.
- Coghill, Neville. "Chaucer's Narrative Art in *The Canterbury Tales*." *Chaucer and Chaucerians: Critical Studies in Middle English Literature*. Ed. Derek Brewer. University: U of Alabama P, 1966. 114-39.
- Fradenburg, Louise. "The Manciple's Servant Tongue: Politics and Poetry in the *Canterbury Tales*." *ELH* 52 (1985): 85-118.
- Green, Richard Firth. *A Crisis of Truth: Literature and Law in Ricardian England*. 1999.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2.
- Grudin, Michaela Paasche. *Chaucer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1996.
- Hanrahan, Michael. "Defamation as Political Contest During the Reign of Richard II." *Medium Aevum* 72 (2003): 259-76.
- Hines, John. "'For sorwe of which he brak his minstralcy': The Demise of the 'Sweete Noyse' of Verse in the *Canterbury Tales*."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25 (2003): 299-315.
- Howard, Donald. *The Idea of the Canterbury Tal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8.
- Hussey, S. S. *Chaucer: An Introduction*. London: Methuen, 1971.
- Justice, Steven. *Writing and Rebellion: England in 1381*.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4.
- Maidstone, Richard. *Concordia: The Reconciliation of Richard II with London*. Trans.

- A. G. Rigg. Ed. David R. Carlson. Kalamazoo, MI: Medieval Inst. Pub., 2003.
- Memorials of London and London Life in the 13<sup>th</sup>, 14<sup>th</sup>, and 15<sup>th</sup> Centuries: A. D. 1276-1419.* Ed. and trans. Henry Thomas Riley. London: Longmans. 1868. 509-16.
- Ovidius, Publius. *Metamorphosis.* Trans. David Raeburn. New York: Penguin, 2004.
- Patterson, Lee. "The 'Parson's Tale' and the Quitting of the *Canterbury Tales*." *Traditio* 34 (1978): 377-79.
- Scase, Wendy. "'Strange and Wonderful bills': Bill-Casting and Political Discourse in Late Medieval England." *New Medieval Literatures II.* Ed. Rita Copeland, David Lawton, and Wendy Scase. Oxford: Clarendon, 1998. 225-47.
- Scattergood, V. J. "The Manciple's Manner of Speaking." *Essays in Criticism* 24 (1974): 124-46.
- Strohm, Paul. *Hochon's Arrow: Social Imagination of Fourteenth-Century Texts.* Princeton: Princeton UP, 1992.
- . *England's Empty Throne: Usurpation and the Language of Legitimation, 1399-1422.* 1998. New Haven: Yale UP; 2006.
- Wallace, David. *Chaucerian Polity: Absolutist Lineages and Associational Forms in England and Italy.* Stanford: Stanford UP, 1997.
- Woods, William. *Chaucerian Spaces: Spatial Poetics in Chaucer's Opening Tales.* Albany: SUNY, 2008.

## ABSTRACT

**Transgression and Containment:  
Language, Defamation, and *The Manciple's Tale***

Hyunyang Lim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practice of slander and defamation during the reign of Richard II as a social context for Chaucer's *The Manciple's Ta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et's growing skepticism about language and human speech as an efficient means of social communication. Focusing on the "house of Phoebus" as the site of sexual and linguistic containment and transgression as well a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London society that underwent unprecedented confusion and disorder, particularly due to slanderous rumors circulating within the city, this paper shows how power was exercised to contain the abusive use of language and thereby either to bring stability to society o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ose in power. As a response to the social crises caused by allegations of defamation and slander that flourished during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London mayors, John Northampton and Nicholas Brembre, and between Richard II and the Lord Appellants as well as other major historical events, the king's reenactment of the *scandalum magantum* statute in 1379 and in 1389 evidences his awareness of the potential of language as a threat to the commonwealth and his effort to prevent social discord by controlling the linguistic transgression. Chaucer's fable of the talking crow shares such concern over the power of language, which has been one of the recurrent themes in Chaucer's early poems. Unlike the poet's celebration of language in his earlier poems, however, *The Manciple's Tale* seriously questions whether, as Cicero once believed, language is a divine gift given to men in order to bring them to civility and harmony. The uncontainable speech of the crow that betrays his training from Phoebus and reveals his bestiality also questions whether human speech is subject to control. The destruction of Phoebus's house caused by the crow's speech and Phoebus' punishment of the crow for telling truth show Chaucer's growing skepticism toward language that is hard to control and can easily be manipulated for the benefit of the power.

**Key Words** | *The Manciple's Tale*, defamation, slander, space, language, transgression, containment